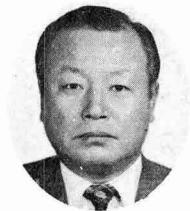


## 第60回

# 日本産業衛生學會參觀記



延世大學校  
産業保健研究所長  
文榮漢

1987 年에 들어서서 日本産業衛生學會는 第60 回째가 되는데 東京의 “虎の門” 옆에 있는 國立教育會館 大홀에서 4月 7 日의 特別研修會를 벼두로 하여 4月 10 日까지 4 日間에 걸쳐서 開催하게 되었다.

이에 곁들여서 제 42 回 日本 產業醫協議會를 開催하게 되었는데 評議員會와 懇談會 그리고 許容濃度委員會를 包含한 各種 委員會가 있고 有機溶劑中毒研究會等 14개 自由集會가 4月 6 日부터 教育會館과 그 以外의 東京市內 여러 場所에서 活潑히 展開되었다. 우리들一行 10餘名은 4月 8 日 特別企劃으로 마련된 심포지움인 “產業醫의 專門性”의 主題發表부터 듣기 위하여 오전 8:00 시 宿所인 東京市의 後樂園 會館을 떠나 國立教育會館으로 向하였다.

今年度 日本産業衛生學會는 昨年度 廣島에서 있었던 第 59 回의 다음으로 東京에서 開催되는 것인데 企劃運營委員長은 小泉 明教授로서 東京大學에서 많은 수고를 하게 되었고 副委員長 3 名, 運營委員 33 名이 任命되고 實行委員長으로는 森本 兼彌氏가 맡게 되었다.

學會 運營은 學會參加費 5,000 円(日貨)을 내고 “이름표”를 받아 옷에 달고 學會 發刊의

講演集을 받게 되는데 學會 發表場所는 一層 大홀과 6 層의 第 1, 第 2 會場, 5 層의 第 3, 4, 5, 6 會場 그리고 4 層의 第 7, 8, 9, 10 會場에서 實施하게 되어 있으며 產業保健 關聯機器 및 書籍의 展示는 第 7 層에서 하게 되었다.

이번 產業衛生學會에 提出된 演題는 307 개論文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時間과 場所關係로 1 演題當 口演이 7 分, 討論이 5 分 許容되는 極히 紮짜인 時間의 進行을 할 수 밖에 없다고 苦笑를 禁치 못하고 있는 實情이 있다.

4月 7 日에 있었던 特別研修會는 1) 作業環境의 許容濃度 2) 有害物質의 生理學的 monitoring 3) 日本人의 life style과 健康教育의 理論 4) 日本人의 life style과 健康教育의 實踐에 對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本人은 參加치 못하였음으로 仔細한 것은 알지 못하고 있다.

4月 8 日(水) 大講堂에서 있었던 “產業醫의 專門性”에 對한 심포지움은 司會를 館 正知先生이 맡았는데 先生은 慶應大學 出身으로 多年間 產業保健分野에서 많은 功績을 쌓으신 분으로 現在 日本 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長으로 在職하고 계시다.

主題發表는 4 名이 하였는데 처음에 產業醫에

要求되는 專門性에 對하여 川崎製鐵의 環境安全  
部의 莊司 榮德氏가 發表한 내용은 產業醫(우리의  
保健管理者에 該當)는 勞動生理學에 関아야 되고  
作業標準時間의 設定에 關聯해서 作業에 있어서  
基礎必要時間과 疲勞回復時間을 算出할 수 있는 專  
門性이 要求되며 臨床的面에 치우치는 現狀에서  
勤勞者의 精神衛生問題 產業衛生에도 더많은 關  
心이 要望되며 作業場 근로자의 業務分析등을 해  
서 事業주에게 좋은 助言이나 勸告를 하여 줄것  
을 要求하고 있었다. 또한 海外進出者の 健康管  
理, 24 時間 營業이 盛行될 金融業에 從事하는  
근무자에 對한 건강관리, 新素材 開發에 따르는  
人體에 미치는 影響에 對한 장기적이고 積極的  
는 研究開發, 事業장의 自動化(FA化) 및 사  
무실 自動化(OA化)에 따르는 問題, 앞으로增  
加一路에 있는 씨-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part-time 씨-비스 問題등 產業場의 特性에  
따르는 產業保健學의 專門性을 發揮해야 할 分  
野가 많고 專門教育을 實施해야 하는 點을 強調  
하였다.

두번째로 “地域에 있어서의 產業醫의 活動”  
은 北里大學의 高田교수가 發表하였는데 產業醫  
의 講習會를 3日間 實施하여 修了證을 發給한  
다고 하였으며 各道나 市마다 醫師會가 關係해  
서 產業醫研修會를 實施하고 있음을 알려주었  
으며 日本醫師會長의 자문기관으로 產業保健委  
員會가 設置되어 있으며 產業醫活動推進을 為  
해 全國會議를 開催하고 있음도 아울러 言及하  
였다.

또한 日本 實情도 韓國과 비슷해서 中小企業  
이 全體企業의 99%를 占하고 있는데 非전속 족  
탁 產業醫가 이 分野에서 일을 맡고 있는 實情이  
라 하였다. 그리고 地域의 產業特性을 反映하는  
勤勞者의 total health care의 確保가 重要하  
다고 強調하고 勤勞者의 生涯生活構造를 基盤으  
로 하는 保健管理가 必要하고 이 分野의 學問의  
専門性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要求하였다.

세번째는 產業醫養成機關에 본 產業醫의 業  
務의 專門性에 對해 日本 產業醫科大學의 大久保  
教授가 發表했는데 產業醫業務分析에 있어서

- 1) 判斷・決定
- 2) 連絡・調整
- 3) 實務・評價

가 있는데 1)과 3)의 業務를 產業場에서 違  
行하는데는 專門性이 없이는 안되는 것으로 指  
摘하였으며 產業醫의 資格制度(專門醫制度와 같  
음)를 만들어야 하고 이 產業醫의 特別資格을  
만들자는 근로자 10,000명이나 20,000명에 한  
사람 꼴로 業務에 從事할 수 있도록 為先은 制  
限하는 것으로 할 것을 提唱한바 있다.

또한 產業醫의 專門性을 反映시키는데 必要한  
具體的인 教科課程(試案)을 發表하였으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 教科課程으로

- 1) 臨床研修를 為해 教育病院級에서 2年間  
로 테이슨의 “인턴”과 제1차 진료를 研修하고
- 2) 基本講座를 듣도록 하는데 3개월에 걸쳐  
서 基礎知識을 習得하고
- 3) 大學이나 研究機關에서 研究方法이나 實  
習을 通해 實際研究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  
고 研究論文의 作成法과 分析評價에 關한 것을  
배우도록 하며
- 4) 產業保健學의 專門醫 밑에서 2年間에 걸  
친 實際 產業醫로서의 經驗을 쌓고 業務의 計劃  
樹立이나 評價技法을 배우고
- 5) 3개월間에 걸쳐 行政機關에서의 行政의  
必項事項을 研修하고
- 6) 6개월에서 9개월간에 걸친 勞動衛生實  
務를 擔當하면서 實狀과 內容을 把握하고
- 7) 3개월에 걸친 專門產災病院研修를 通해  
塵肺患者나 特殊職業患者를 直接 診療해 보는 것  
이 必要하다고 그 具體的 考案을 披瀝하였다.

#### 마지막으로

아세아 太平洋地區의 ILO事務所長으로 있는  
小木 和孝氏가 1985年 ILO總會에서 採擇된 職  
業保健씨-비스條約(161條)과 171號의 職業  
保健씨-비스 勸告에 立脚한 業務處理를 잘하려  
면 產業醫의 專門性이 必要하다고 力說하고 產業  
保健分野의 多方面에 걸친 總括的인 綜合的  
으로서의 活動과 權能賦與를 받아서 多樣性 있는

保健計劃中에 產業保健의 專門性을 發揮하고 實績을 쌓아 올리는게 아세아 太平洋地域의 諸國家에서는 必要할 것이라고 매듭지었다.

다음은 4月 9日(木)부터 本格的으로 學術論文發表가 始作되었는데 午前中에 第 1 會場은 健康管理·健康診斷, 第 2 會場은 有機溶劑, 第 3 會場은 腰痛, 頸肩腕障礙, 第 4 會場은 振動, 第 5 會場은 망간, 크롬, 第 6 會場은 有害까스, 第 7 會場은 鉛, 第 8 會場은 粉塵·塵肺, 第 9 會場은 勞動生理, 第 10 會場은 有機物이 있었고 午後에 들어서서 VDT(視覺表示端末)와 變異原·發癌에 關한 事項等이 追加되었다.

그리고 4月 10日(金)은 午前中에만 發表가 있었는데 精神衛生과 “카드미움” 그리고 勞動環境에 關한 事項이 追加되었다.

發表場所가 여러層 여러곳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모두 들을 수 있는 機會가 없었는데 그中 몇 가지 印象的인 것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1) 健康管理·健康診斷

이 分野는 역시 中小企業 特히 零細企業에서 일어나는 問題點을 많이 다루었는데 그 分野의 解決을 為해서 社團法人 全國勞動衛生團體聯合會(73機關)가 關與하고 있는데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는 實情이었다.

다음으로 產業保健과 地域保健의 統一的 展開가 바람직하다는 内容이 있고 時系列 데이터를 利用한 健康管理體系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内容이 있었다.

### 2) 有機溶劑 關係

벤젠을 腹腔內 投與한 토끼의 末梢血液像의 變化등 44個의 演題가 發表되었는데 벤젠과 톨루엔間의 代謝抑制作用, 에탄올과 벤젠과의 代謝에 關한相互作用등이 深度있게 다루어졌으며 트리클로르에칠렌과 쥐肝 마이크로솜酵素問題가 다루어졌으며 뿐드의 상습적 흡입자와 趣味로 有機溶劑를 자주 다루는 스키機器修理를 趣味로 하는 者의異常, 尿中 馬尿酸 高濃度發見에 關한 發表도 있어 產業場 이외의 地域에서 實地生活과의 密着된 研究活動이 展開되고 있음을 實感케 하였다.

### 3) 망간·크롬

스텐레스 作業者의 尿中 크롬排泄에 關한 事項과 크롬色素의 生體에 미치는 影響에 關하여 肺癌 發生率, 吸入後의 體內代謝動態, 骨髓의 小核試驗 등을 通해 研究가 推進되는 것을 發表하였고 6價크롬과 淋巴球 姉妹染色分體의 交換에 關한 研究등이 있었다.

### 4) 鉛

東京醫科齒科大學에서 唾液鉛濃度가 있었고 鉛暴露評價法에 있어서

赤血球피리미딩 - 5 - 뉴크레오티타제 (P5N)의 活性과 鉛暴露量과는 높은 負의 相關關係가 있음을 發表하였고

尿中 코프로폴피린보다 尿中 S-ALA 檢定이 集團保健診斷에 有効하다는 說이 있었고 神經·筋機能의 檢討를 為해 亂形檢查의 普及을 言及한 것 等이 發表되었다.

### 5) 粉塵·塵肺

이곳에서는 石綿粉塵의 許容濃度와 石綿肺症에 關한 研究가 많이 나왔는데 末梢 淋巴球 小核試驗을 通해서 內容檢討를 한 研究와 C.T.(콤퓨터 단층촬영)를 利用한 肺의 病理像을追求하는 內容이 있었다.

### 6) VDT(視覺表示端末)

VDT에 關聯해서 CRT 表示의 注視와 打鍵에 따르는 作業 即 視覺表示端末作業이 生產現象과 事務分野에서 널리 普及되고 있는바 作業者的 負擔과 健康障礙를 調査하기 為하여 特히 眼科的健診問題, 近點距離測定, 屈折異常有無, 視覺의 障碍與否를 調査하는 것과 眼球運動에 의한 疲勞特性問題, 頸肩腕의 筋負擔등을 問題 삼게 되어 16개의 演題가 發表되었다.

### 7) 變異原·發癌

全體 11개의 演題가 있었는데 크롬의 흡을 주에 폭로시켰을 時 골수세포의 染色體異狀을 보는것과 末梢血液 淋巴球의 染色體異常을 보는것이 있었고 낙 يكن分野에 對해서도 같은 內容의 研究가 發表되었다.

디-젤·탈에 의한 淋巴球의 小核과 淋巴球姉

殊染色分體交換(SEC)의 유발을 담배의 “탈”과 比較検討하는 것이 있었으며 Benzidin(벤자린)의 發癌作用에 對한 過程이 檢討되었고 아 니린化合物의 構造와 “놀-하만”에 의한 活用이 變異原性 誘發과의 關與與否가 研究發表 되었다.

또한 “에임스”試驗에 대치해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였는데 즉 대장균에서의 DNA 손상時 나타나는 SOS反應을 利用한 簡易試驗인 umu試驗이 그 感受性, 特性에 있어서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內容이 公開되었다.

#### 8) 新素材

工業의 發達에 따라 新체라믹등 새로운 素材가 日就月將으로 쏟아져 나오고 利用되고 있는 데 특히 硼素가리움(AsGa)의 發癌性 檢討, 酸化니켈(NiO), 酸化 크롬(Cr<sub>2</sub>O<sub>3</sub>)이 評價되었

다.

以上 몇가지 事項에 關해서 內容檢討를 하였으나 日本產業衛生學會의 正會員이 2,300 餘名이나 되는 큰 會員을 가지고 있으며 演題數도 많은 것을 볼 때 日本의 產業保健의 水準을 採直할 수 있으며 日本醫學會 中에서도 뒤지지 않는 位置를 占하고 있다고 보면 原著의 깊이도相當한 水準에 와있음을 알 수 있다.

日本產業衛生學會가 1929年에 發足되었으니까 1987年現在 58年이 되는 셈인데 歷史와 傳統을 가지고 있는 學會의 다음날인 4月11日부터는 第4回 韓日產業保健 學術集談會가 東京後樂園 會館에서 開催됨으로 우리들一行은 明日의 對備를 為해 衛生學會場인 國立教育會館을 떠난 것은 午後 1時頃이었다.

## 第60回 日本產業衛生學會 演題小考

# 產業醫의 專門性



順天鄉大學  
南澤昇

### I. 緒論

1984年度부터 韓國에서 始作한 韓日 產業醫學 symposium은 벌써 4회째를 맞이하였다. 처음에는 大韓產業保健協會 會長이신 曺圭常博士와 日本側 ILO 아시아 太平洋 地域 小木博士와 協議하여 進行된 것이 오늘에 와서는 日本側各醫科大學 教授들과 日本 產業衛生學會, 日本 產業醫 協議會, 各縣에 組織되고 있는 豫防醫學協會, 全國 產業衛生 評議會 等의 많은 呼應을

받으며 日本 東京에서 開催되었다.

韓日 兩側의 會長 各 1名씩이고 幹事長 1名씩, 運營委員 10餘名씩으로 組織된 이 會는 每年 韓日間이 交代로 開催하며 그야말로 兩國間의 產業醫學의 새로운 問題點들과 低濃度 公害와 새로운 公害物質들에 대한 環境問題와 人體에 미치는 急慢性 中毒症狀들에 대한 진지한 學術 發表會라고 評價받고 있는 現狀이다.

兩國間의 座長 1名씩과 發表論文도 雙方間 協議下에 새로운 問題點들을 가지고 實施하는 이